

오쿠보 갱도

이와미 은광에서 가장 큰 갱도인 오쿠보 갱도는 방문객들에게 개방된 2 개의 주요 갱도 중 하나입니다. 이와미 은광에서 가장 활발한 채굴이 이루어졌던 곳 중 하나인 오쿠보 갱도는 1500 년대 후반부터 메이지 시대(1868~1912)까지 채굴이 계속되었고 수세기에 걸쳐 반복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높은 입구가 특징인 이 갱도는 도쿠가와 막부로부터 이와미 은광의 감독관으로 임명된 초대 부교(무가 시대에 행정 사무를 담당했던 장관급 관리)인 오쿠보 나가야스(1545~1613)의 이름을 따 지어졌습니다.

장소에 따라 높이 5m 에 달하는 메인 갱도는 여러 개의 작은 갱도로 뻗어 나갑니다. 이 작은 갱도들은 은 광맥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지금도 그 흔적을 벽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 존재하는 수직갱의 일부는 환기용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지하수를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메인 갱도의 벽은 매우 매끄러운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는 끌과 쇠파치만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메인 갱도는 메이지 시대에 광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다이너마이트로 그 너비를 넓혔기 때문에 벽 곳곳에는 거친 굴착 기술의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당시 광차의 침목 형태는 오늘날에도 지상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쿠보 갱도의 가이드 투어는 3 월부터 11 월까지 주말과 공휴일에 실시됩니다. 갱도는 겨울철이면 박쥐의 동면장소로 이용되며 갱도 내부에서는 일년 내내 박쥐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